



세계연합신문 모바일 보기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장관급 격상된 '한중 FTA 공동위'...공급망 핫라인 활성화 합의

별도 회담서 한국, 중국 측에 '요소수 통관 중단' 해결 요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인도 자이푸르 캄파 팔리스호텔에서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 있는 중국 상무부에서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올해 발효 9년을 맞은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5차 공동위 수석대표로는 한국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중국 측에서는 왕셔우원(王受文) 국제무역담판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1차부터 4차까지 수석대표가 실·국장급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회의의 위상이 장관급으로 격상된 것이

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5년 2천274억달러 수준이던 한중 교역 규모는 2015년 12월 FTA 발효 후 크게 늘어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3천104억달러 규모로 확대됐다.

이날 양국은 2025년 한중 FTA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FTA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며 디지털·그린 등 신성장 규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지체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본격화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

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양국 수석대표는 별도의 양자 회담을 열어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두 대표는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공급망 핫라인'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날 한국 측은 최근 중국산 요소수 한국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품 검사를 통과한 물량의 통관이 중단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중국 측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한국 측은 이 같은 중국의 조치가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아울러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방문 규 산업부 장관과 왕윈타오(王文涛) 중국 상무부장이 간담회를 열고 논의한 '국장급 수출 통제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하고, 구체적 운영방식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안덕근 본부장은 베이징 왕징에 있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본사를 찾아 디지털 분야에서 한중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현장에서는 알리바바 플랫폼을 활용해 한국의 중소·중견기업이 중국과 아세안 등 제3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 김윤호 기자

이태원참사 유가족 "특별법 신속통과 촉구...국회 앞 농성"



는 마음을 생각하면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너무나도 느리고 답답하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12월 내 국회의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의 회의의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의 사당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3명의 국회의원 공동 발의로 제출된 특별법은 아직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안은 지난 6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8월 31일 행정안전위원회 통과했으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차례의 논의도 없이 3개월이 흘러 11월 29일에서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원내지도부가 동의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정하면 내일이라도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될 수 있다"며 "유가족들의 애타

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시간 우리는 진실을 알고자 노력했고, 특별법은 국회에 상정됐다"며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역할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회견을 마친 후 분향소에서 신촌·홍대, 여의도 국민회·민주당 중앙당사 등을 거쳐 국회 앞까지 약 10.29km를 행진했다. 이들은 오는 8일까지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매일 행진하고, 국회 앞 농성장을 마련해 1인 피켓시위, 철야 전략 농성 등에 나설 계획이다. / 송진영 기자

"장기 근무 경찰·소방 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돼야"

경찰·소방노조, 대통령실 인근서 집회

경찰·소방 노조는 장기 근무한 경찰·소방 공무원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와 전국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서 집회를 열고 "대통령은 경찰·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 개정 법안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작년 8월 국가보훈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연구용역조차 실시하지 않았고, 지난해 2월 발의된 '국립묘지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도 정부의 정책을 이행하고 제복 공무원들을 예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1일 이후 화재진압·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이 현충원에 안장됐다.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군인의 경우 20년 이상 군 복무한 사람 등은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분류된다.

경찰·소방 노조는 경찰·소방 공무원도 군인처럼 장기 근무자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최해성 기자

검찰,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 적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10여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으로 지목된 식당, 과일가게 등 상점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병현 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조씨는 "피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엔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개인 음식값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그의 폭로로 검찰과 경찰이 김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는 한편,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경기도 공무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최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추가 수사 끝에 영장을 재청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한편,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이 그동안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 의혹,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의 일환이었다.

/ 이철민 기자

"언뜻날 네 여정은 자금보다 훨씬 즐겁고 더 안전할거야."

더 즐겁고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기술이 만듭니다

HYUNDAI MOBIS

2036년까지 '서해안 해저 전력고속도로' 건설...민간 참여 확대

'송전시장 미개방' 원칙하 용지확보·인허가까지 민간 참여 가능

정부가 오는 2036년까지 호남에서 생산한 원전, 재생에너지 발전력을 직접 수도권에 공급하는 '서해안 해저 전력고속도로'를 건설한다.

지금까지는 호남에서 남아도는 원전·재생에너지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실어나를 전력계통이 부족해 출력정지와 감발 등이 빈번했지만, 해저에 초고압직류송전(HVDC)을 깔아 반도체 공장이 밀집한 수도권 첨단전략산업단지에 무탄소전원을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HVDC 건설에 참여하는 방안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 기간 전력망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해 기존 한국전력이 독점하던 송전시장을 민간에 개방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유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제30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계통 혁신대책'과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및 방향'을 놓고 관계부처 및 에너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전력계통 혁신대책은 동서를 가로지르는 가로축 전력고속도로인 '동해안-수도권 HVDC', 남북을 잇는 세로축 해저 전력고속도로인 '서해안 HVDC'의



방문규 장관, 겨울철 전력수급 운영 점검

적기 건설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호남의 원전·재생에너지 발전력을 해저를 통해 수도권에 공급하는 서해안 HVDC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오는 2036년 기준 한빛 1~6호기를 통해 원전 발전력이 5.9기가와트(GW), 신재생에너지 발전력이 64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라 서해안 HVDC의 준공 목표도 2036년으로 잡았다.

서해안 HVDC는 신해남~태안~서인천을 거치는 구간이 430km, 새만금~태안~영흥 구간이 190km에 이른다. 총비용은 7조9천억원, 수송 능력은 8기가와트(GW)

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해저 선로 건설을 택한 것은 육상 전력망 추가 건설이 높은 설비 밀집도와 주민 반대 등으로 한계에 부딪혔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해안 해저 HVDC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해상케이블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해상그리드 신산업을 육성할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HVDC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송전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민간의 건설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설계·시공 부문에만 민

간이 참여했지만, 설계·시공과 함께 용지 확보와 인허가까지 포괄하는 턴키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건설 이후 민간이 운영권까지 갖는 철도,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SOC)과는 달리 HVDC 건설 후에는 한전에 설비를 귀속시키고 운영도 한전이 수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동해안 발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을 추진한다.

동해안 지역에는 원전과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 설비가 밀집해 있지만 송전선로가 부족해 발전에 제약이 있었다.

특히 신한울 3·4호기(2.8GW) 신규 원전 생산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려면 송전선로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부 140km·서부 90km(1단계)와 양평·하남 50km(2단계)에 이르는 국내 최장 육상 HVDC를 건설할 계획이다.

방문규 장관은 에너지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와 서해안 송전선로 등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인허가, 보상 등 특례를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조명현 씨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익제보자 조명현 작가 초청 포럼에서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법카의혹' 제보자, 국회 복콘서트...“몸통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라는 책을 펴낸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조명현(45) 씨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복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공동 주최로 열렸고, 윤재욱 원내대표와 이 수석부대표, 장 청년 최고위원, 이인선 원내부대표가 축하했다.

조 씨는 복 콘서트에서 "이 대표가 있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대표 법인카드 부패 행위를 고발한 제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며 "복 콘서트 시작 전 속보를 봤는데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제 개인 힘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힘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씨는 "법카를 사용한 모든 부분을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 본인이 승인하고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이 대표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조 씨를 향해 "대단한 의미 있는 행동을 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작가처럼 용기 있는 분들이 비난이 아닌 찬사를 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조 작가와

같은 공익제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을 말하고 부당함을 밝히는 게 두렵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조 작가는 공익제보자 A씨라는 호칭으로 이름도 없이 2년여간 살아왔는데, 국감 이후 얼굴을 드러내고 용기 있게 한 것은 정말 투철한 정의감과 사명감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정말 용기 있는 제보로 이 대표와 김 씨의 법카 유용 사실을 온 세상에 밝혀 주었다"고 말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오늘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었는데 사필귀정이라는 말의 힘을 믿는다"며 "법카로 소고기, 초밥 사 먹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사람들이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대로 콩밥 먹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씨는 지난해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그의 신고로 검찰과 경찰이 김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조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묵인했다'며 이 대표도 함께 조사해달라고 신고했고, 공교롭게도 이날 행사 시작 직전 검찰이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박정수 기자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항소심 다음달 시작

1심 실형 이후 판사 정치성향 논란...항소심 판단 주목



실형 선고 받은 정진석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지난 8월 1심 선고 당시 여론을 중심으로 판사의 정치 성향이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만큼 항소심 판단이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4-3부(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는 최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1월 25일 오

후 4시로 지정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며 지난 8월 정 의원의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원은 퇴직해야 하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시 검찰 구형량(벌금 500만원)을 넘어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형이 선고되자 보수진영에서는 판결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박 판사의 성향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특히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가열됐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박 판사에게 SNS 활용과 관련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 이원욱 기자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경기를 가치있게! 2023.12.1. ~ 2024.1.31.

2022년 지원금액
784억

2022년 모금금액
799억



사랑의열매는 연말에 모금액이 집중됨에 따라 일부 모금액은 다음해에 우리 이웃들에게 지원됩니다.

- 지역대상: 아동/청소년 134억, 노인 69억, 장애인 30억, 여성/다문화 31억, 위기계층 354억, 저소득층 166억, 해외/북한 4천7백만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경기를 가치있게!

사랑의열매
2024년 4월 10일

사랑의열매
대한민국 나눔 플랫폼

LH, 내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5천가구 매입...재원마련도

현재 피해주택 141건 매입신청 접수...매입 요건·절차 등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내년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일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해 약 5천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다.

LH는 4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밝혔다.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LH의 매입 주택 유형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LH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까지 LH에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 요청 건수는 1천519건이며, 이 중 141건의 매입 신청을 받았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해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하며,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

LH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피해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앞서 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주택매입 시 LH는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불법(위반) 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 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 사업에 비해 소요 기간을 2~3개월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약 5천가구 매입을 위한 재원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LH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면서 "많은 피해자가 조속한 시일 내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LH는 긴급주거지원 및 우선공급용으로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 확보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제퇴거 등으로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거나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모두 150건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포함한 LH의 피해자 주거 지원 방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성철 기자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협회, 11~17일 총파업 찬반투표 17일엔 '의사 총궐기대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협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사 총파업에 돌입할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및 임원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단체 행동 수위를 높이고 파업 찬반 투표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된 것처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찬성률

이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의협 관계자는 "찬성표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파업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정부와 먼저 대화를 하되, 대화가 안 되면 총파업까지 할 수 있다는 회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파업 찬반투표와 별개로 오는 17일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의협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필수 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을 이끈 최대집 당시 의협 회장을 수석부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으로 확정했다. / 노정윤 기자

박형준, 민주당에 산은 부산이전 촉구 서한

박형준 부산시장이 4일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부산의 숙원사업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실과 홍익표 원내대표실에 전달했다. 당초 박 시장은 이 대표와 면담을 요청했으나 당내 일정으로 인해 만남은 불발됐다. 대신 박 시장은 부산시 입장을 담은 서한을 당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

호 의원에게 전달했다.

서한에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남부권에 또 하나의 혁신 성장축을 만드는 일"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비전을 세우고 추진해온 국가 균형 발전을 유익한 정부에서 실현하는 역사적인 일로 민주당의 가치와도 부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재 국회 정부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남부권 전체 경제 성장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일로 민주당의 가치와도 부합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시급적이 될 만한 일로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진행 중인 예결위 핵심 인사를 만나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등 부산의 미래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차질 없는 국비 지원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박 시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예결위 위원장·양당 간사 등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의 핵심 인사를 모두 만나 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의 현안과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운영,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예코델타시티 그린데이터 센터 집적단지 조성, 가덕대교·송정 IC 고가도로 등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 및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 최경환 기자

이상민 장관 "제복입은 젊은이들 최선의 대우 해주겠다"

고 임성철 소방장 빈소 방문해 유족 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제복을 입고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최선의 대우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화재 진압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 빈소인 제주시 부민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며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성철 소방장 유족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공정과 상식이란 것을 이뤄달라"며 "우리 아들의 희생으로 인해 이 나라 젊은이들의 피와 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임성철! 우리 야고보(세례명)는 영웅이다"라며 "모든 청년 소방관 화이팅"이라고 외쳤다.

이 장관은 유족을 만난 뒤 빈소를 찾은 소방관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겠다"며 "임 소방장 희생을 계기로 여러분의 안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마지막 피와 땀을 흘리겠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저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소방장의 영결식은 5일 오전 10시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고 임성철 소방장 유족 위로하는 이상민 장관

제주도청장(鄭)으로 임수된다.

윤구 행렬은 고인이 근무했던 제주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와 생가, 화북성당 등을 거쳐 영결식장에 도착할 예정이며 오후 3시경 국립제주추모국원에서 안장식(봉안식)이 진행된다.

고인은 지난 1일 오전 1시 9분께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주택 옆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중 거센 불길에 무너져 내린 창고 외벽 콘크리트 처마에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 강동호 기자

당정, '대구시 군부대 이전' 정책협의 "MOU 연내 체결 필요"



4일 국회에서 대구시 군부대 이전 당정협의회의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대구시 군부대 이전 등 민·군 상생협력'을 주제로 정부와 정책협의회의를 열고, 대구 군부대 이전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로 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대구 군부대 이전이 대구의 신성장 거점 조성에 기여하고, 군부대를 유치하는 지자체에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부대 유치를 신청한 군위군·상주시·영천시·의성군·칠곡군 등 5개 이전 후보 지역을 대상으로 최적의 이전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대구시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구시와 국방부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대구 군부대 이전 논의를 위한 민·군 상생 업무협약(MOU)'을 연내에 조기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주호영·임병헌·임이자·이만희·정희용 등 국민의힘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이 자리했고, 정부와 지자체에선 김선호 국방부 차관,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국방부는 대구시와 민관협의체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민군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왔다"며 "국방부가 적극 참여해 좋은 결실을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서정미 기자

KB금융그룹 | 국민의힘이 금융파트너 | 세상을 바꾸는 금융

금융을 넘어 환경까지
KB증권이 함께 합니다

CHANGE *_{KB} OUR LIFE

Change our life 플로깅!
'22 양양 인구해변
'23 부산 해운대

깨비증권 그린로드 (도심 숲) 조성!
'22 난지 캠핑장
'23 천왕산 캠핑장

자원순환 및 탄소저감 시행!
'22 제주 푸른컵(공유컵) 제작
'23 사내 폐가전 회수, 재활용

KB증권

與 “요소수 대란 반복 우려...비상한 마음으로 대책 강구해야”

“반도체 등 수출 회복세, 예산안 신속히 처리해야”



발언하는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은 4일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통관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요소수 사태 재발을 우려하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통관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막으면서 2년 전 겪었던 요소수 대란이 반복되는 게 아닌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관계 당국은 정확한 상황 파악은 물론이고 공급 원활화를 위한 대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요소수는 산업 현장에서 질소산화물 제거와 국민들의 경유차 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품목인 만큼 비상한 마음으로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돌연 중

단하며 요소수 대란이 2년 만에 다시 오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진다”며 “대외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공급망 다변화 등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으면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반도체 수출 무역수지가 지난해 2월 이후 21개월 만에 모두 흑자로 돌아섰다”며 “이 회복의 온기를 더 뜨겁게 만들고 흐름이 지속되도록 이루어야 한다. 그런 만큼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동이 걸린 수출 증가에 가속이 붙도록 뒷받침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들이 제때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예산안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금 국회가 시급히 할 일은 법안-예산의 신속한 처리이지 쌍특검, 국정조사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했다. / 송유영 기자

與 혁신위 ‘최후통첩’ 최고위 상정 불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지도부가 4일 혁신위원회의 ‘최후통첩’에 무반응을 보였다. 사실상 이를 일축한 셈이다. 앞서 혁신위는 지도부·중진·친윤(친 윤석열) 인사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합치 출마를 요구하는 이른바 ‘희생 혁신안’을 정식으로 의결하고, 지도부에 이날을 답변 시한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혁신안은 이날 최고위원회에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않았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내년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추천 요구는 일찌감치 묵살당했다고 여겨지는 분위기다.

지도부와 혁신위는 이날 최고위 상정 불발 배경을 두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혁신위의 적극적 상정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하자, 오신환 혁신위원은 언론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식이다.

혁신위는 오는 7일 열린 최고위에 다시 ‘희생 혁신안’의 안건 상정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 황민수 기자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 용되는 무슨 취지인지 알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주고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지켜 보는 게 맞을 것”이라면서 “결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결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혁신위) 본연의 역할 범주, 성격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역시 CBS 라디오에서 “3분 만에 요리가 안 나왔다고 실패는 아닌 것”이라면서 “추후 김기현 지도부에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천 룰을 세팅할 때 혁신위의 방향성을 얼마나 존중하는 지를 보면 진정성이 충분히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줄다리기 상황이 지도부에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혁신위가 조기 해체와 동시에 ‘비대위 폭탄’을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강서구정장 보궐선거 참패를 반성하고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자 출범한 혁신위의 결론이 ‘김기현 책임론’이 되는 셈이다. / 황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 “12월 임시국회 바로 열어 3개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대로 12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해 3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3건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비롯해 해병대 체포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정조사 건들은 이미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며 “임시국회 내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바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법사위 파업’으로 여야가 합의한 500건의 법안이 밀려 있다”며 “우리는 무조건 12월 임시국회를 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50여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선 “일단 8일이 정국회 마지막 본회의니 가장 유력하다”면서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에 대해 “정기국회는 절대 넘길 생각이 없다”며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2개의 수정안을 준비해 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감액과 증액이 다 포함된 것과 ‘삭감 예산안’을 갖고 있다”면서 “증액은 정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니, 감액안만 가지고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장을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며 “오늘 오후 3시까지 여당 측은 새로운 인사청문위원장을 제안하라”고 요구했다. / 조규돈 기자

이낙연, 신당 창당설에 “때가 되면 말할 것...제3세력에 공감”

“민주당 ‘내부 다양성·당내 민주주의’ 면역체계 무너져”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4일 자신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설과 관련해 “너무 길게 끌면 안 되니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때가 되면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핵심적 위기인 정치 양극화를 저지하기 위한 제3세력 결집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나라의 사람의 인생을 걸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일단 내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제3세력이라는 것은 양당 모두 싫다는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분 중 한 분만 고르라는 시험문제가 작년 대선부터 계속돼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분들에게 정당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의사가 국회라는 제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파이프를



만들어주는 것은 정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간 민주당에 대해서는 극도로 발언을 자제했으나 그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며 “내부 위기의식에도 (당이) 달라지지 않아 나의 기다림도 이제 바닥이 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내부 다양성과 당내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며 “누구든 할 말을 하고 그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

명 대표가 총선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고, 그리고 싶지도 않다”며 “그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당이 알아서 판단하고 그 결과도 당이 알아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민주당도 왜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을 못 얻는지, 그 원인을 잘 아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며 “달같은 안에서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밖에서 깨면 프라이가 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경우 비대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요청이 오면 수락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내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직책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 최해성 기자

소환앞둔 송영길 “尹퇴진당”은 민주당 친구당...비례 힘모아달라

“명분과 실리 다 얻을 수 있다...200석 이상도 가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4일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겠다는 구상과 관련, 이 신당이 민주당 우당(友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녁’에 출연, 관련 질문에 “지역구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민주당 후보로 힘을 모아주고 비례대표 영역에서는 민주당 우당으로 가칭 ‘윤석열 퇴진당’에 힘을 모아주면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송 전 대표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소 회의적으로 평가한 데 대해 “동의한다. 명분과 실리를 다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내가 제시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거론하며 “송영길, 용혜인 등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우당 비례대표로 힘을 모아주고 지역구에서는 연합해 야권이 단일 후보로 나와주면 압승할 수 있다. 200석 이상 얻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일제 치하라면 독립을 위해 싸운다는 ‘대한독립당’이 필요하듯 윤석열 정권이 나라 경쟁력을 쪼먹고 있기 때문에 이것(퇴진)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돼야 한다”며 신당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오는 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퇴진과 탄핵 주장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나왔다. / 윤철민 기자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 📍 재난재해 지원 긴급 출동
- 📍 우리동네 선한가게 지원
- 📍 농어촌 학생 진로탐색 멘토링
- 📍 생명의 숲 조성
- 📍 울진 숲길 산불피해지 복구

우리금융그룹, 왜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다우리잖아요~”

우리금융그룹은 '우리 모두'를 위해 10가지 사업과 우리금융미래재단 출범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디든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간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금융지주 | 우리은행 | 우리카드 | 우리금융캐피탈 | 우리종합금융 | 우리저축은행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우리저신은행 | 우리벤처파트너스 | 우리글로벌자산운용 |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 우리신용정보 | 우리펀드서비스 | 우리에프아이에스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차가해 논란에 경찰 “법리 검토 중”

황씨 추가소환 예정...‘전청조 사기 공모 의혹’ 남현희 3차 출석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 측의 피해자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를 확인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황씨 측이 피해자를 특정한 행위에 대해 수사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황씨 측) 범무법인이든 황씨 본인인든 2차 가해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씨를 대리하는 범무법인은 지난달 22일 낸 입장문에서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은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에 대해선 “디지털 포렌식을 거의 완료했고 관련자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황씨 측이 문제의 영상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활영물 등 유포)로 검찰에 송치된 황씨 형수가 “결백하다”고 항변한 데 대해선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으나 충실하고 탄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찰은 전청조(27·구속기소)씨의 수습억원대 투자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팬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를 지난 1일 추가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남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은 지난달 6일과 8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전씨 사건에서 남씨가 공범으로 고소된 사건은 3건, 피해액은 10억여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남씨를 몇 차례 더 조사할 수 있다”며 “공모 여부 확인을 위해 포렌식 결과, 관련자 조사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남씨로부터 자진 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귀금속 등 물품(엔트리 차량 제외)은 총 44점, 액수는 1억원 상당이다. 해당 물품은 모두 남씨가 전씨로부터 선물 받은 것들이다. 또한 수사 결과 현재까지 전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32명, 피해액은 총 36억9천여만원으로 늘었다.

/ 황유찬 기자

北海킹조직 ‘안다리엘’, 대공무기 등 국내 방산기술 빼돌렸다

북한 해킹조직 ‘안다리엘’이 국내 방산 업체 등을 해킹해 주요 기술자료를 탈취하고 랜섬웨어 ‘몸값’을 일부 북한으로 송금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지원과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안다리엘이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 해킹 공격을 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원이 불명확한 가입자에게도 서버를 임대하는 국내 서버임대업체를 이용, 경유지 서버로 삼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양 류경동에서 83차례 접속했다.

류경동은 북한 최고층 건물인 류경호텔, 류경동주유체육관 등이 있는 평양 시내 명소로 국제통신국과 평양정보센터 등도 이곳에 있다.

안다리엘은 통신·보안·IT 서비스 업체 국내 대기업 자회사와 첨단과학기술·식품·생물학 등을 다루는 국내 기술원·연구소, 대학교, 제약회사, 방산업체, 금융회사 등 수십여곳을 해킹해 레이저 대공무기를 비롯한 주요 기술자료를 빼돌렸다. 서버 사용자 계정 아이디·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도 새 나갔다.

경찰은 총 1.2 테라바이트(TB) 분량의 기술·자료 파일이 탈취된 것으로 확인했

다. 이를 해당 업체들에 통보했으나 대부분은 피해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기업 신뢰도 하락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안다리엘은 또 랜섬웨어를 유포해 국내 업체 3곳에서 컴퓨터 시스템 복구비로 4억7천여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중 일부는 북한으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빗썸, 바이낸스 등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 내역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외국인 여성 A씨의 계좌를 거쳐 약 63만위안(약 1억1천만원)이 중국 K은행으로 보내졌고, 이 돈이 북·중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점에서 출금됐으며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자금세탁 연루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그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금융계좌, 휴대전화,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사례와 유사 해킹 시도 가능성을 수사하는 한편 범죄에 활용되는 서버 임대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 장수경 기자

‘폭언논란’ 카카오 김정호 “일반적 조사에 난리쳐...세번째 사례”

김정호 CA 총괄 “같은 규정 적용 위해 셀프징계 요청...골프회원권 매각으로 3~4배 이득”



김정호 카카오 CA협의회 경영지원총괄

김정호 카카오 CA협의회 경영지원총괄 겸 준법과신뢰위원회 위원은 4일 폭언 논란에 대해 일반적 조사에 피조사자가 난리친 데 따른 것이며, 이미 두 명의 조

사 담당 임원이 자신처럼 프레임에 갇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김 총괄은 이날 오전 카카오아지트에서 열린 비상경영회의 후 기자와 만나 “원래는 별 것 아니었고 일반적인 조사였는데 (피조사자가) 갑자기 난리를 치니까 이렇게 키친 것”이라며 “외부에 오픈하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조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괄은 “(자신이) 똑같은 방식으로 묶은 다음에 윤리위원회에 넣고 언론에 터뜨리고 노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업계에서) 다섯 번째로 날아갈 뻔한 임원이었더라”며 “카카오에서 세번째, 다른 기업에서 2명”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처럼 조사 담당 임원의 폭언 등이 외부에 알려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사례가 카카오에서만 두 차례 더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김 총괄은 지난달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폭언 논란에 대해 700억~800억원 규모의 제주도 프로젝트 공사업체를 결재·합의도 없이 정해진 업체가 있다고 주장한 임원과 10분 정도 언쟁을 했지만 아무 말도 안 하는 다른 임원들을 보다가 분노가 폭발했다고 해명한 적 있다.

김 총괄은 “검찰에서 ‘여기 아닌 것 같다. 와라’고 하면 가지고 다 제출해야지 ‘나를 탄압을 하네’ 이런 소리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라며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조사를 받으면 되는 건데 (윤리위원회와 노조 등) 착한 분들을 너무 이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총괄은 전날 밤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카카오의 ‘100대 0’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스스로 윤리 위원회에 징계 여부를 요청한 데 대해 “(규정이)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니까 제가 직접 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모든 정보를 내부(100%)에서 공유하고, 절대적으로 외부(0%)에 보안을 유지하지는 100대 0 원칙을 내부 규정으로 두고 있다.

김 총괄은 전날 게시물에서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 사과하고 결과에 따르겠다고면서도 움츠러들거나 위축되지 않고 계속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괄은 이날 고가 골프회원권 논란에 대해 “20억(원) 짜리를 준 게 아니고 예전 싼 것을 준 게 오른 것”이라며 “이번에 매각하면서 회사는 엄청난 이득을 얻는다”고 말했다.

그는 “거의 4배 오른 것도 있고 3배 오른 것도 있다”며 “거의 100% 휴양 시설과 보육 시설로 투입된다”고 덧붙였다.

/ 김윤성 기자

의사 겸 방송인 여에스터, 전직 식약처 과장에 고발 당해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터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의혹이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이 경찰에 고발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

씨는 지난달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사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여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남경준 기자

**습관적인 당신의 불법소각
소중한 산림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소각할때 생기는 크고 작은 불씨들
특히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먼곳까지 날아가 큰 산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멈추세요!

허가없이 산림과 가까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폐비닐 등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불법이며 큰 산불로 번져 끔찍한 재앙을 부를 수 있습니다!

외교부, 북 정찰위성 정당화에 “거짓 선동·추가도발 중단하길”

외교부는 3일 북한이 잇달아 담화를 내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정당화한 데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 당국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주권적 권리’라고 강변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는 우주개발권에 대해서는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국가가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금지된 발사를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부과되는 유엔 헌장상의 안보리 결정 준수 의무(제25조)를 이미 위반했고, 이는 유엔헌장 포함 국제법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



북 “정찰위성, 팽택·서울 등 촬영”...김정은, 위성관제소 또 방문

해 우주를 탐사·사우해야 한다는 우주조약(제3조)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수중에 틀어쥐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위성’ 개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며 평화적 목적이 아님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북한이 군사노획원 글을 통해 한국의 정찰위성발사 등 자위조치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조치는 국제법에 부합하고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논평원은 한국의 정찰위성 발사

에 대해 “우리의 위성발사가 북남군사분야협약의서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면 (중략) 이미 정해진 11월 30일에서 12월 2일로 미루면서도 미국상전에게 기대어 끝내 실행한 군사정찰위성발사는 어떠한가”라며 “그 어떤 철면피한도 이를 ‘합의 준수’라고 우겨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역지를 부리면서 합의 파기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겼다.

외교부 당국자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고, 선제 핵공격 위협을 통해 한반도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확하다”며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행위에 대한 거짓 선동과 추가 도발을 즉시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국방성,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잇달아 담화를 내고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 김현성 기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지지구내 최고위 인사인 아히야 신와르

이스라엘군 이제 우선목표는 ‘하마스 수장’ 신와르 제거

하마스 포로 수백명 심문해 지도부 관련 정보 획득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7일 간의 휴전을 종료한 이스라엘군이 가지지구내 하마스 최고위 인사인 아히야 신와르의 소재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마스를 신속하게 해체하는 데 수뇌부 제거가 필수라는 군사적, 안보적 이유도 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기사 회생을 위한 정치적 이유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가지지구 북부를 완전히 장악한 이스라엘군과 정보당국은 현재까지 하마스 무장대원 수백명을 사로잡아 신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일시 휴전이 끝나자마자 가지지구 남부에 대한 공세를 서두른 배경에는 이 과정에서 신와르를 비롯한 하마스 지

도부를 색출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스라엘군의 ‘다음 단계’ 전략에 밝은 당국자들도 새 정보를 활용,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0월 27일 가지지구에 대한 지상전을 개시한 이스라엘군은 최대도시인 가자시터를 비롯한 북부 거의 전역을 점령하고 하마스 주요 군사시설 상당수를 파괴했지만, 핵심 지도부는 잡지 못했다.

가디언은 “앞서 이스라엘군 당국자들은 (하마스의) 중간급 전장 지휘관 다수를 사살했으나 고위급 지도자들에게는 닿지 못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현재 신와르를 비롯한 하마스 최고위급 인사들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가지지구 남부 주요도시 칸유니스 아래 땅굴에 몸을 숨긴 채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지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순철 기자

일본 대마도 해변 쓰레기 줍기에 한미일 인사가 함께 참여

3일 부산에서 직선거리로 약 50km 떨어진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對馬島·대마도)에서 한미일 3국 인사가 함께 해변 쓰레기를 줍는 행사를 진행했다.

주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와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 하타카쓰 나오키 쓰시마 시장 등 한미일 3개국 인사가 이날 쓰시마섬 해변에서 페트병 등 쓰레기를 함께 주웠다.

행사는 지난 8월 한미일 정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간 협력을 다양한 차원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이를 이행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윤 대사는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 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 공통 과제”라며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이 힘을 합쳐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오늘 행사가 매우 뜻깊다”고



한미일 3국 인사, 쓰레기 줍기에 함께 참여

말했다.

쓰시마는 해류의 영향으로 주변국에서 바다로 버려진 쓰레기가 많이 흘러드는

곳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일본 환경 단체는 쓰시마섬에서 매년 ‘비치 클린업 인 쓰시마’ 행사를 열어왔다. 지난 10월에는 주후쿠오카 대한민국총영사관과 주후쿠오카 미국영사관, 쓰시마시가 함께 이 행사에 참여한 바 있다.

윤 대사와 이매뉴얼 대사는 쓰레기 줍기 활동 뒤 인근 박물관으로 이동해 현지 고교생들과 함께 환경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도 함께 했다고 주일 한국대사관은 전했다.

/ 양희진 기자

머스크의 X 진짜 파산할까...광고중단 사태 치명적일 수도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가 최근 광고 중단 사태로 파산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X의 매출에서 광고의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광고주와의 갈등에 오히려 기쁨을 끼얹는 머스크로 인한 리스크는 단기간에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국 BBC 방송은 2일(현지시간) 최근 계속되는 글로벌 거대 기업들의 X 광고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머스크가 440억 달러(약 57조 원)에 인수한 회사의 파산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X는 지난해 10월 머스크에 인수된 이후 혐오 표현이 증가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에는 머스크가 반유대주의 음모 주장을 지지하는 글을 직접 올리면서 광고주 이탈이 본격화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27일 이스라엘을 찾아 하마스 선멸을 지지하는 등 논란 진화에 나서서 뚫었으나, 이를 뒤 뉴욕타임스(NYT)의 공개 대담에서 광고주 이탈에 대해 거친 욕설로 비난하면서 문제를 더욱 키웠다. 이미 IBM과 애플, 월트디즈니, 월마트 등 거대 광고주들이 잇따라 X에서의 광고 중단을 선언했다.

BBC는 이런 광고주 이탈 사태와 관련, 지난해 X 매출의 광고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존폐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트위터의 광고 매출은 약 40억 달러(약 5조2천억 원)지만, 올해는 약 19억 달러(약 2조5천억 원) 수준으로 반토

오너리스크 들불...매출 중 광고비중 90% 위기
구조조정·이자협상 모두 난망...신사업도 글썽
전문가 잇따라 경종...머스크 “망하면 불매운동 탓일듯”

막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마케팅 컨설팅 기업 이비쿼티의 최고고객책임자 마크 게이는 “자금이 빠져나왔고 아무도 그곳에 재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머스크 역시 NYT 대담 당시 “회사가 망한다면 광고 불매운동 탓일 것”이라고 직접 파산 가능성을 거론했다.

매출 감소에 대응할 자구책도 마땅치 않은 형편이다.

이미 머스크는 지난해 X 인수 직후 전체 인력의 절반이 넘는 3천700명을 해고하는 유례 없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X 인수를 위해 빌린 대출금 130억 달러(약 16조9천억 원)를 갚음으로써 연간 12억 달러(약 1조6천억 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었지만 머스크로선 X에 대한 추가 투자를 꺼릴 것이라고 BBC는 짚었다. 이자 지급과 관련해 은행과 협상을 추진할 수 있으나 이마저 실패할 경우 X의 파산이 현실이 될 수 있다. 확실한 해결책은 신사업 발굴로, X의 여러 시도도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X는 최근 음성·영상 통화 서비스를 시작했고, 머스크가 직접 게임을 즐기는 장면을 온라인 생중계하기도 했다.

결제사업 매출은 올해 1천500만 달러(약 190억 원)에서 2028년 13억 달러(약 1조7천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X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들 사업 중 어떤 것도 당장의 광고 매출 결손을 채울 대안이 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머스크는 오히려 공격적인 태도로 광고주와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 그는 NYT 공개 대담 당시 X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밥 아이거 월트디즈니 CEO를 겨냥해 “안녕, 밥. 정중석에 당신이 있다면 그게 내가 느끼는 기분”이라고 직격했다.

시장조사기관 인사이더 인텔리전스의 수석 분석가 재스민 엔버그는 “소셜 미디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X에 돈을 내는 광고주를 사감을 담아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게 사업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케팅 컨설팅 업체 AJL 어드버서리의 루 파스칼리스는 “나로서는 말이 되는 시나리오가 하나도 없다”며 “아마 머스크의 머리에는 내가 모르는 수의 모델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 노승현 기자

NH 농업함께하는 100년농협

농촌여행은 웃음이 익어가는 여행

아이도 어른도 함께 웃으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모두가 그리워하던 여행

마음이 원하는 우리 농촌에서 힐링 여행을 보내세요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세심하게 지원해 주니까,
안심하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드디어, 맛집 등극!
짱하고 해뜰날이 오긴 오네요!
#신한카드 #소상공인지원 #사장님감동
#MySHOP파트너 #MyCredit #금융으로일상을이롭게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당신이 No.1**입니다

신한카드가 세상의 모든
작은 No.1을 응원합니다

MyShop 파트너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마케팅 통합지원 플랫폼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건강검진 예약/전용 쇼핑물 제공

MyCredit 서비스

금융권 최초, 개인사업자 맞춤 신용평가로 소상공인 지원

준법감시 심의필 제20230623-Exn-002호(2023.06.23~2024.06.22)

1Lead by 신한카드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추진에 노동계 반발...“개악 중단하라”

양대 노총 “노동자 목숨 담보한 것...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3일 “노동자를 위협한 일터로 밀어 넣고 사용자에게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돈을 벌도록 하는 행위에 결사반대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고위 협의회를 열고 내달 1월 27일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상시 근로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노총 등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서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영계를 중심으로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며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이에 국민의힘 임자 의원도 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논의되도록 한다

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추가 유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날 한국노총은 “법 공포 후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이제 와서 현실적 예방 운운하며 또다시 시행을 유예하려 하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추가 유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날 한국노총은 “법 공포 후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이제 와서 현실적 예방 운운하며 또다시 시행을 유예하려 하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 강희성 기자

거부권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유예 추진까지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도 지난달 30일 법 적용 유예에 반대하는 노동자·시민 6만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추가 유예 시도가 “단순한 시기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무력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으며, 오는 5일 오후 국회 앞에서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1일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추진으로 노동 관계엔 긴장감이 더해지게 됐다. 다만 최근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만큼 노동계는 대화와 투쟁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말 무산됐던 이번 정부 첫 노사정 4차 대표자 회의는 오는 14일로 개최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강희성 기자



골드바

국제 금값 상승에 국내 금 거래량도 7개월 만에 최대

“금리 하락·미국 경기 침체 전망 강화에 상승 추세로 전환”

국제 금값이 오르면서 국내에서도 금 거래량이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되는 금 선물 가격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온스당 2천57.20달러를 기록했다. 연초인 지난 1월 3일 온스당 1천836.10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12% 상승했다.

특히 전날에는 금값이 온스당 2천67.10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0년 8월 2천69.40달러로 마감한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이처럼 국제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금값도 오르고 금 시장도 거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KRX)는 KRX 금시장에서 지난 1일 금 1kg 현물의 증가가 g당 8만5천720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 거래일 대비 1.07% 오른 가격이다. 미니 금 100g의 증가도 g당

0.85% 오른 8만5천610원을 기록했다. 월별 금 거래량의 경우 지난달 1천222.8kg으로 집계됐다. 1천385.5kg을 기록했던 지난 4월 이후 최대치다. 구체적으로 금 거래량은 5월 1천180.1kg, 6월 1천92.0kg, 7월 827.8kg, 8월 905.1kg, 9월 629.3kg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0월 1천196.3kg으로 다시 1천kg을 넘으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월별 거래대금도 3월 1천471억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10월 1천3억 원, 11월 1천23억 원으로 다시 1천억 원을 넘어섬에 증가했다. 개인의 금 거래 참여도 반등세를 보였다. 지난 1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49.58%였다가 8월 33.36%까지 줄었으나, 9월 36.18%, 10월 47.51%로 다시 커졌다. 다만 11월 개인의 비중은 36.59%였다. 금 가격 상승은 최근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 영향으로 풀이된다. / 최현서 기자



제16회 한국 문화의 날 행사

코트라-우리은행, 한국기업 브라질 법인 설립 지원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상파울루 무역관과 우리은행 브라질 법인은 브라질 현지에서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한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3일 코트라에 따르면 코트라는 브라질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 전문과 주력 품목에 대한 현지 시장

동향 컨설팅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상파울루시에 소재한 브라질 법인 사무실에 별도의 사무 공간을 100일간 제공, 법인을 설립하려는 기업들이 초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금리와 외환 수수료 우대와 같은 금융 혜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인구 2억명의 거대 시장이자,

남미의 대표적인 생산 기지로 꼽힌다.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녹십자 등 한국 기업 100여개사가 진출해 있다. 최근에는 식량, 광물 등 자원 수입 공급망 지역으로도 주목받고 있어 현지 법인 설립 수요가 확대하는 추세라고 코트라는 전했다. / 최민지 기자

中, 산업용 요소 통관 중단...중국내 수급상황 고려한듯 수출심사 후 선적 단계서 '보류'...중정부 공식 설명 없어

중국 당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통관을 돌연 보류해 정부가 상황 파악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중국의 요소 통관 중단과 관련한 합동회의를 열고 요소 공급망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오는 4일에도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다. 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청은 최근 중국 현지 기업들이 한국으로 보내는 요소의 통관을 막았다. 수출 심사를 마친 뒤 선적 단계에서 통관이 보류된 것으로, 보류된 기업 중에는 국내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일 중국 측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답변은 없는 상태. 정부 내에서는 중국의 이번 요소 통관 보류와 관련, 정식 수출 통제 성격보다는 중국이 자국 내 수급 상황을 감안한 조치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다만 2년 전인 2021년 하반기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요소 수출을 제한했고, '나비효과' 격으로 국내 요소수



주요수 한 편에 쌓인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나 물류가 마비 직전까지 갔던 점을 고려해 정부는 관련 상황을 면밀히 파악 중이다. 정부는 현재 국내 요소 비축분이 3개월분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상황을 파악 중으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환 입장을 없다”며 “국내 요소수 재고를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오창수 기자

금호석화, 이산화탄소 포집·액화플랜트 착공...CCUS 사업 첫삽



금호석유화학, 케이엔에이특수가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1일 전남 여수제2에너지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사업의 핵심 설비인 이산화탄소 포집·액화 플랜트 착공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플랜트가 2025년 초 준공되면 향후 금호석유화학 열병합발전소의 스팀 및 전기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만 선택적으로 포집해 액화 공정을 거쳐 탄산으로 재생산하는 프로세스가 구축된다고 금호석유화학은 설명했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작년 7월 한국 특수가스 사업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합작투자 계약 등을 거쳐 올해 9월 액화탄산 제조 및 판매 합작법인 케이엔에이특수가스를 설립하며 이번 사업을 준비해 왔다. 금호석유화학은 여수 플랜트에서 연간 약 6만9천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재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매년 2만7천여 그루의 나무를 새로 심는 효과와 동등하다. 금호석유화학 백종훈 대표는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다른 고부가 탄산화합물로 전환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동시에 신규 먹거리와 관련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유정 기자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ie technology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니 SKIE 특별노하우전시관-4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이 작품은 다음 키워드를 기반으로 SK이노베이션과 AI가 함께 그린픽처입니다]
#전기차 부품 핵심 기술 #배터리분리막 #안전함 #세계를 움직이는

작품명 **안전한 기술이 타고 있어요**

SK아이이테크놀로지
CES* 혁신상 수상에 빛나는 배터리 분리막 기술력이 전 세계 전기차를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CES (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Hi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그린픽처**

SK innovation SK energy SK geo centric SK on SK enmove SK incheon petrochem SK trading international SK ie technology SK earthon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그 모든 순간, 끝까지 함께할 내 편 하나

앞으로도 계속될 대전하나시티즌의 뜨거운 도전을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신탁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 TI | 핑크 |

'10년 전세 살면 분양 전환?'...인천 원도심 민간임대 주의보

최근 인천 원도심에서 10년만 전세를 살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민간임대주택 광고가 성행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인천시 동구와 미추홀구에 따르면 최근 동구 송림동·송현동, 미추홀구 주안동 일대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홍보관이 잇따라 들어섰다.

이 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3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지어 조합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구조다. 계약을 맺고 임대주택에 입주한 조합원들은 10년간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살고 있던 주택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면 협동조합추진위원회를 꾸려 발기인을 5명 이상 모집한 뒤 협동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 신고, 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에는 임대주택 건설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토지 사용 권원)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천 원도심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은 협동조합추진위만 꾸려진 초기 단계인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일찌감치 홍보관을 열고 구체적인 평수가 명시된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내부 시설을 홍보하고 있다. 이들 홍보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안전한 민간임대 아파트가 대안'이라거나 '10년 동안 살아보고 10년 전 값에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라는 홍보성 문구를 내걸고 발기인을 모집 중이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행정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 문제다.

협동조합 설립 신고는 인천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는 관할 구청에 하게 돼 있는데 그 전 단계에서는 시·군·구가 사업 추진 현황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조합원 모집 전에는 토지 소유권이나 토지 사용 동의서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도 없어 홍보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조차 어렵다.

이에 미추홀구와 동구는 최근 이 사업과 관련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내기도 했다.

동구 관계자는 "발기인 신청을 할 때 내는 가입비의 반환 규정도 없어 명확한 계약서와 규약을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 단계 초기에서 홍보되는 계획들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토지 사용 동의서 확보 상황에 따라 사업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송진영 기자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출범식

제주 희망 나눔 캠페인 시작 43억2천만원 모금 목표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기 위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제주에서도 시작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제주사랑의열매)는 1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었다.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제주를 가치있게'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캠페인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된다. 모금 목표액은 물가 상승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늘어난 복지 수요를 반영해 동일 기간 최고 금액인 43억2천만원으로 정해졌다.

출범식에는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과 주요 기부자, 나눔봉사단, 사회복지기관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해 캠페인 목표 달성을 기원했다. 출범식에서는 캠페인 1호 개인·단체·법인 기부자가 대표가 1억원 기부를 약정해 제주 아너소사이어티(고액 기부자 모임) 142호로 가입했다.

롯데관광개발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도 사회공헌 성금 1억원 기부를 약정해 1호 법인 기부자이자 제주 나눔명문기업회(제주사랑의열매)는 11호가 됐다. 단체 1호 기부자는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로, 5천700만원 상당의 한돈을 기부했다.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10번째 한돈 나눔 행사를 통해 현재까지 13억원이 넘는 기부를 실천해왔다. 이날 제막된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 모금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린다.

캠페인 기간 도내 방송사와 사랑의열매 사무처에 모금 접수창구가 마련되며 금융기관, 약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사랑의열매 모금함에 성금을 낼 수도 있다. 사랑의 온도탑 외벽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서도 간편결제 방식으로 나눔에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전액 도내 취약계층 사회적 돌봄과 안전한 일상 지원, 교육·자립 역량강화 지원, 신 사회문제 대응 등 4대 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지원된다. / 권윤희 기자

거제시, 주민 반대 이유로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 불허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거제 지역에 설치하려던 강제징용노동자상(노동자상)이 무산됐다. 거제시는 최근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신청한 조형물 설치안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 5월부터 범시민 모금운동을 시작으로 장승포항 수변공원에 노동자상 설치를 추진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경남 거제 지역에 조선인을 강제 동원하기 위한 입영 준비 훈련소가 있었고, 장승포항을 통해 일본과 남태평양 등으로 강제 동원된 노동자가 많았던 만큼 지역에 노동자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당초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설치를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기자회견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반대 측 반발이 거센 데다 거제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수변공원 설치를 포기했다.

한일갈등타파연대 등으로 구성된 거제애국시민사회단체는 노동자상이 반일 감정을 앞세우고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 선동용이라는 이유 등으로 그동안 반대해왔다.

이들은 광복절을 전후로 장승포항에서 설치 저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추진위는 대신 시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설치 장소를 거제문화예술회관 내 평화의 소녀상 옆으로 바꾸고 시에 조형물 설치 신청서를 내 승인을 기다렸다.

거제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 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꾸려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친 뒤 최근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거제시 관계자는 "주민 반대가 많고 설치 예정지가 문화예술회관이다 보니 해당 공간의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부결됐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 박진성 기자

"내년엔 농촌에서 학교 다녀요"...서울교육청, 농촌유학생 모집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학기에 농촌유학에 참여할 신규 학생을 오는 4~11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농촌유학은 서울 초·중학생이 일정 기간 농촌 학교에 다니면서 생태 친화적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서울 공립 초등학교 1~6학년 및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유학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이다. 유학 기간은 학교별로 다르다.

거주 유형은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생활하는 '가족체류형', 농가부모와 생활하는 '홈스테이형', 활동가와 함께 유학센터에서 생활하는 '유학센터형' 등 3가지다.

농촌유학을 운영하는 학교는 농산어촌 소재 재적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다. 전남 15개 지역 47개 학교, 전북 8개 지역 18개 학교, 강원 9개 지역 17개 학교에서 신규 학생을 모집한다. 농촌유학을 위해 매월 30~60만원의 경비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전라남도교육청과 협력해 농촌



농촌에 유학 온 서울 학생들

유학을 시작한 이후 2022년 전라북도,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유학 지역을 확대해왔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1천5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농촌유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11일 정오까지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황민지 기자

'80년만에 고국 품으로'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사망자 유해 봉환



타라와 강제동원 피해자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됐다가 숨진 피해자 고(故) 최병연 씨의 유해가 8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3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1943년 태평양전쟁 당시 타라와 전투에

서 사망한 최씨의 유해가 이날 오후 6시 30분 인천 국제공항으로 봉환된다.

최씨 유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타라와가 있는 남태평양의 키리바시공화국에서

돌아오지 못하다가 지난 9월 미국 국방성에 의해 하와이로 옮겨졌다.

정부의 유전자(DNA) 대조 작업 결과 타라와 전투에서 사망한 한국인은 현재까지 1천117명으로 파악되며, 피해자 유해가 국내로 봉환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시민모임은 이를 기리기 위해 오는 4일 오후 2시 전남 영광군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앞에서 추도식을 개최한다.

영광에는 최씨 유족들이 거주하며, 흥농읍 선산에 최씨의 가묘가 마련돼 있다. 정부를 대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족 등이 참석하며, 추도식 이후에는 안장식도 함께 열린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강제 동원 가해자인 일본은 무고한 한국인들을 전쟁에 끌고 가 총알받이로 삼았다"며 "강제 동원돼 타국땅에서 숨진 한국인들에 대한 추도가 유해봉환을 계기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민도현 기자

kobec 한국해양진흥공사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한국의 미래를 기대海

KOBEC Anniversary 2018 - 2023
한국해양진흥공사 창립 5주년

놀라운 도약의 지난 5년, 그리고 더 크고 더 높게 성장해
新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앞으로의 50년을 기대海.

01 총 자산 20조원 | 02 선박금융 공금 1위 | 03 스마트 해운 물류 통합 플랫폼 구현 | 04 ESG 공공부문 최우수 등급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



내 재산 내 뜻대로 상속하고 싶다면?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상담 가능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지금 바로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보세요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

※ 365일 24시간 언제나 상담예약 가능합니다 ☎ 1566-8004

리빙트러스트
바로가기



유언대용신탁 13년의 노하우
2010년 출시 이후 13년간 축적된
상속 집행의 노하우와 솔루션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 컨설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부동산 등
각 분야별 전문가의 토탈 케어 솔루션



1:1 맞춤형 상속설계
신탁 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맞춤 플랜으로 상속 설계 및 이행



종합자산 관리 & 운용
상속 전 자산에 대한 전문적인 재산관리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하시기 전에 운용방법의 지정, 해지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신탁계약)은 자산가치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실정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보수: 신탁재산가액의 0.5%~1%, 집행보수: 신탁재산가액의 0.75%~1.5%, 금전 관리보수(연보수): 신탁원본평균잔액의 0.3%~1%, 부동산 및 기타 관리보수: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 신탁보수는 개별계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을 통한 상속 및 증여시 관련 법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고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0116호 (2023.04.05~2023.11.30) * CC브랜드 230329-0454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광고-0241호(2023.04.05~2023.11.30)



'서초 성취마을' 올해 뉴홈 사전청약 무산...대방동 군부지 주목

'강남권 첫 뉴홈' 성취마을...인허가 절차 늦어져 내년으로 공급 밀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의 모습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와 함께 입지가 우수한 '알짜' 공공분양주택(뉴홈) 단지로 관심을 모은 서울 서초구 성취마을 부지의 올해 사전청약 공급이 무산됐다.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올해 12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사전청약 신청을 받을 것으로 계획됐던 성취마을 300가구는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아 연내 공급이 어려워졌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일반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싼 만큼 '반값 아파트'로도 불리지만,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

SH 관계자는 "성취마을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절차가 늦어져 올해 사전청약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SH가 맡은 서울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에 이어 성취마을 공급 계획도 내년으

로 밀린 것이다. 성동구치소 부지는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의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설계 공모를 다시 하느라 공급 일정이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뉴홈 사전청약 공급을 7천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성취마을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9개 지구를 연내 공급 물량에 추가했다. 성취마을은 위치가 서울 지하철 2·4호선 사당역 인근인 데다, 강남권에서 처음 공급되는 뉴홈이라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연내 공급이 무산되면서 이달 중 공급될 올해 마지막 뉴홈 사전청약 때는 남양주 왕숙2(836가구), 고양 창릉(400가구), 위례 A1-14(260가구), 수원 당수2(403가구) 등이 '나눔형'으로 풀린다.

SH는 역시 토지임대부 주택인 서울 마곡 택지차고지 210가구를 예정대로 12월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뉴홈 사전청약에서 마곡 택지차고지와 함께 서울 내 우수 입지로 관심을 끄는 곳은 대방동 군 부지다. 동작구 대방동 6번지 일원의 국방부 소유 땅 일부를 LH가 위탁 개발한다.

총 1천327가구 중 다수 물량(836가구)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는 '일반형' 뉴홈으로 조기 공급된다.

추정 분양가는 전용 면적 59㎡가 8억7천225만원이고,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한강변 수방사 부지(일반분양 경쟁률 645 대 1)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대방동 군 부지 개발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진행돼 민간 사업자 공모가 진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니라 민간 브랜드를 단 아파트로 공급된다는 뜻이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는 단순 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지분을 출자해 공동 시행자가 되고, 분양 후엔 최종 수익을 나눠 갖는다.

12월 사전청약 때 대방동 군 부지와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맡은 안양관양(276가구)이 '일반형'으로 공급된다.

/ 신재일 기자



서울형 대관람차 '서울 트윈아이' 디자인

상암 평화의공원에 서울 랜드마크 대관람차 본격화...제안접수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랜드마크로서 조성을 추진하는 대관람차 사업의 윤곽이 잡혔다.

서울시는 민간 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상암 월드컵공원 내 평원에 대관람차를 포함한 복합문화시설 '서울 트윈아이'(가칭)를 조성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하늘공원 일대에 바퀴살이 없는 고리 형태의 대관람차를 조성하는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9월부터 시작된 대관람차 민간 사업자 공모에 지난 달 29일 제안서를 접수한 '서울 트윈아이 컨소시엄'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더리츠 외 3개 회사로 구성됐다. 서울 트윈아이 컨소시엄은 민간투자법상 최초제안자 지위를 가진다.

컨소시엄은 시가 발표한 기본방향을

반영하되 접근성·사업비 등을 고려해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 난지 연못 일대에 두 개의 고리가 교차하는 형태의 대관람차 서울 트윈아이를 제안했다. 총사업비는 9천102억원 규모다.

당초 시는 대상지를 하늘공원으로 정하고 지반조사 등 안정적인 대관람차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으나, 사업자가 접근성·사업성·사업비 등을 고려해 최적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제안 대상지를 월드컵공원 일대로 확대했다.

이번 제안서에는 규모 180m 내외의 살 없는(spokeless) 고리 형태가 교차하는 트윈 휠(Twin Wheel) 대관람차 디자인이 담겼다.

살이 없는 디자인으로는 세계 최대, 고리가 교차하는 트윈 휠 형태로는 세계 최초다. 대관람차 캡슐(capsule)은 총 64개로 한 주기당 1천440명이 탑승할 수 있도록 제안됐다.

/ 홍은주 기자

'내년 9월 개최' 전북도민체전 포스터·엠블럼·마스코트 선정

내년 9월 전북 순창에서 열리는 제 61회 전북 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상징물이 확정됐다.

3일 순창군에 따르면 상징물 심사위원회는 전국에서 응모한 포스터 4점, 엠블럼 8점, 마스코트 4점, 슬로건 136점 등 152점을 심사해 당선작을 뽑았다.

선정된 대회 포스터는 역동적인 그래픽 위에 선수들의 열정과 체전의 역동성을 표현한 작품이 선정됐다.

엠블럼은 순창 특산물인 장류를 상징하는 장독과 육산산수를 모티브로 활력있는 느낌을 표현한 작품이다.

/ 박소희 기자

인도 벵갈루루에 경기비즈니스센터 개소...총 14개국 19곳 운영



인도 벵갈루루 경기비즈니스센터 개소

경기도 산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알려진 대표적인 산업도시 벵갈루루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벵갈루루 GBC는 지난 10월 개설했으나 현지 행사 일정에 맞춰 이날 1일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시작했다.

벵갈루루 GBC는 인도 내에서 모바일에 이어 2번째이고 전체 14번째 GBC이다.

10월 이후 뉴욕, 자카르타, 마닐라, 멕시코시티, 도쿄 등 5곳에 디지털 GBC가 추가 개설했에 따라 현재는 14개국에 19개 GBC가 운영 중이다.

벵갈루루 GBC는 인도 남부 시장에 진

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센터로, 바이어 발굴 및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도내 기업들이 인도에서 폭넓은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도를 계획하다.

이달 1일 개소식에서 경과원은 인도 공과대학 스타트업 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우수 스타트업 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벵갈루루 GBC 개소식은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 경제영도 확장' 기조에 맞춰 이뤄졌다"며 "벵갈루루와 경기도는 자국의 경제발전과 혁신을 이끄는 곳이라는 점에서 서로 닮아있어 향후 경기도와 인도 간 미래 협력의 교두보이자 중추로 벵갈루루 GBC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지호 기자

'따뜻하고 편리한' 한남대 내 공사 현장 근로자 휴게시설

한남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공사 현장에 건설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마련됐다.

1일 한남대에 따르면 건축공학과 강희선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지역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인 '리빙랩 사업'을 통해 이곳 공사 현장에 냉난방 시설을 갖춘 휴게공간을 만들었다.

건설 현장의 휴게시설은 보통 컨테이너나 천막을 사용한다.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근로자들이 더위나 추위에 떨고, 사망 사고도 발생하곤 한다.

휴게실이 아예 없거나 먼 곳도 있다.

강 교수팀은 점이식 패널 구조의 냉·난방시설을 갖춘 휴게시설을 제작해 설치했다.

여름에는 건식 냉방 패널을 활용한 '복사 냉방 방식', 겨울에는 바닥 패널에 온수를 흘려보내 난방이 가능하게 한 구조다.

에어컨이나 난방 기기를 별도 설치하지 않아도 패널에 내장을 해 패널 조립만으로 냉난방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이다.



현장 규모에 따라 여러 개의 점이식 패널 구조 휴게시설을 접합해 연결할 수 있고, 이동과 보관이 간편한 것이 장점이다.

강 교수팀은 특허출원과 등록을 진행 중이다.

강 교수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 필요 수요에 꼭 맞춰 이용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 황준수 기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용 GS그룹이 응원합니다

결제는 한번에 제대로 적립과 할인은 저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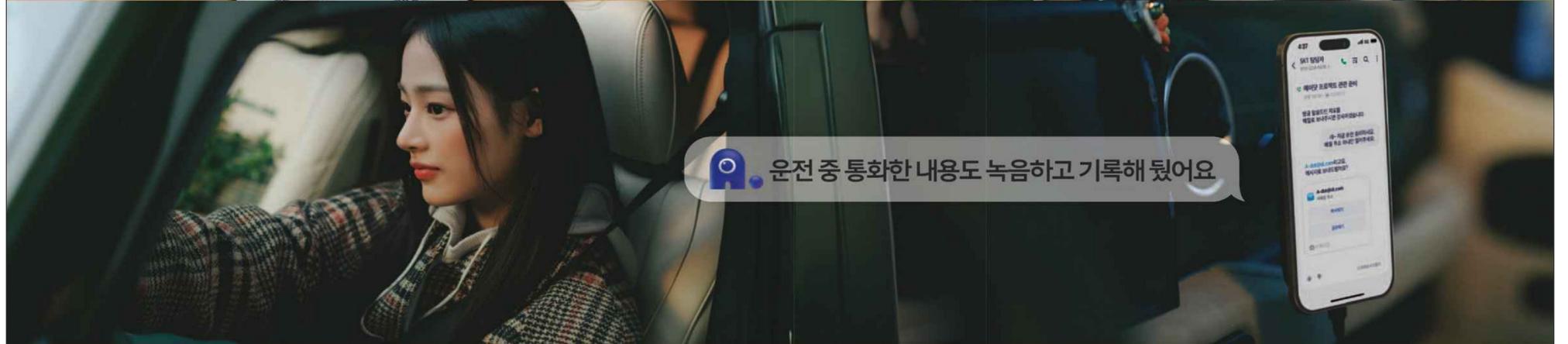
1. 에너지플러스앱 다운로드 2. 비로주유 접속 3. 결제/할인/적립 수단 미리 등록 4. 앱만 켜면 지급 없이 주유券 커지는 무본 혜택까지 5. 비로주유 할수록

아직도 주유할 때 지갑 꺼내세요?

energy plus 앱 다운받고 바로주유 하세요

앱 바코드만으로 주유, 결제, 할인, 적립까지 한 번에 끝!

에너지플러스는 에너지 그 가능성을 넓혀드리는 의미를 담은 GS그룹의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에너지플러스 앱은 GS그룹이 제공하는 Mobility service를 경험할 수 있는 모바일 채널로서 고객과의 편의성과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통화 내용을 녹음, 요약, 검색까지 해 주는 A. 통화요약

A. iPhone 통화녹음이 필요할 땐

나만의 AI 개인비서, 에이닷

SKT의 AI는 누구에게나 있다
AI for Everyone
SK telecom



'최강' 맨시티와 난타전 속 무승부...손흥민 "정말 자랑스럽다"

자책골 지운 '1골 1도움' 활약... "맨시티 상대로 득점에 기뻐"

자책골의 아픔을 딛고 1골 1도움으로 맹활약한 손흥민(토트넘)은 최강 전력으로 꼽히는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 난타전 끝에 비긴 팀에 대한 자부심을 감추지 못했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은 4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시티와 2023-202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3 무승부를 거뒀다. 전반 6분 시즌 9호 골이자 선제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이후 137초 만에 프리킥 상황에서 자책골을 내주며 고개를 숙였다.

다시 경기에 집중한 손흥민은 1-2로 뒤진 후반 24분 센터 서클에서 넘어온 공을 감각적인 패스로 연결, 로셀소의 득점을 도우며 두 번째 공격포인트를 올렸다. 이후 후반 36분 잭 그릴리시에게 실점해 끌려간 토트넘은 후반 45분 데얀 콜루세브스키의 헤딩 골로 기분 좋은 무승부를 따냈다.



손흥민

손흥민은 경기 후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맨시티는 분명히 거대한 팀이고,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라면서 "하지만 이겨 바로 우리가 축구를 사랑하는 이유다.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90분이 다 지날 때까지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정말, 정말로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자책골 상황을 돌아본 손흥민은 "이것도 축구다. 때로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며 "난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으나 (당시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맨시티를 상대로 득점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밝혔다. 경기 막판에 극적인 동점 골을 성공한 콜루세브스키를 칭찬하는 주장다운 면모

도 보였다. 손흥민은 "그 친구들은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에 포기하지 않았다"며 "브레넨 존슨이 멋진 솜씨를 보여줬다. 대단한 크로스가 페널티박스로 향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콜루세브스키는 보통 헤딩 득점이 많지 않은데, 난 정말로 콜루세브스키가 자랑스럽다"고 칭찬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유럽 트레블'(3관왕)의 위업을 달성한 맨시티를 상대로 승점 1을 따낸 상황을 놓고 "이게 우리 팀, 선수들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사령탑인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맨시티를 상대로 보여준 토트넘의 '공격 축구'에 흡족함을 드러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 선수들이 후반에 보여준 노력은 대단했다. 이런 대단한 팀을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는 힘들리기 쉬운데,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최준용 기자



27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 시상식에서 KBO리그 수비상을 받은 LG 유격수 오지환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한국시리즈 MVP 오지환, 일간스포츠·조아제약 프로야구대상

노시환 최고타자·고영표 최고투수·문동주 신인상 영예

프로야구 LG 트윈스를 29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주장 오지환이 2023년 일간스포츠·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지환은 4일 서울 강남구 엘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가장 마지막에 대상의 주인공으로 호명됐다.

한국시리즈에서 홈런 3개와 타율 0.316(19타수 6안타), 8타점을 수확하고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쳐 LG의 정규리그·통합우승에 공헌하고 한국시리즈 최우수 선수(MVP)에 뽑힌 오지환은 연말 언론사 시상식에서도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의 한 해를 만끽했다.

올해 정규리그 홈런(31개), 타점(101개) 2관왕에 오른 노시환(한화 이글스)은 최고 타자, 단졌다 하면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로 제몫을 해내는 고영표(kt wiz)는 최고 투수에 각각 선정됐다.

고영표는 올 시즌 28경기에 출전해 12승 7패, 평균자책점 2.78을 올리고 21차례 퀄리티스타트를 달성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아시아프로야구 챔피언십을 거쳐 우리나라 마운드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성장한 문동주(한화)는 KBO 신인상에 이어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신인상 3관왕을 휩쓸었다.

올 시즌 세이브 1위(42개)를 차지한 서

진용(SSG 랜더스)은 최고 구원투수상, LG의 29년 우승 한을 훈 염경엽 감독은 감독상을 각각 받았다.

코치상은 NC 다이노스 마운드를 팀 평균자책점 2위(3.83)로 이끈 김수경 코치에게, 재기상은 타격(타율 0.339), 안타(187개) 1위를 석권한 손아섭(NC)에게 돌아갔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 내야수 최초로 골드 글러브를 낀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올 시즌 도루 24개를 기록하고 멀티 포지션 플레이어로 가능성을 보인 배지환(피츠버그 파이리츠)은 나란히 특별상을 받았다.

◇ 2023 일간스포츠·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수상자

- ▲ 대상 = 오지환(LG) ▲ 최고 타자상 = 노시환(한화) ▲ 최고 투수상 = 고영표(kt) ▲ 최고 구원투수상 = 서진용(SSG) ▲ 감독상 = 염경엽(LG) ▲ 코치상 = 김수경(NC) ▲ 신인상 = 문동주(한화) ▲ 프런티어상 = LG ▲ 기량발전상 = 윤동희(롯데)·박영현(kt) ▲ 재기상 = 손아섭(NC) ▲ 수비상 = 양의지(두산) ▲ 조아바이톤-에이상은 윤영철(KIA) ▲ 해파토스상 = 김해성(키움) ▲ 면역칸 에스상은 원태인(삼성) ▲ 특별상 = 김하성(샌디에이고)·배지환(피츠버그) ▲ 공로상 = 최강야구 최강몬스터상 ▲ 스포츠도토 포도제닉상 = 박해민(LG) ▲ 허규연 야구발전장학회 공로상 = 신상민 대한유소년클럽야구협회

/ 한순철 기자

지유찬, 황선우·김우민과 한솔밥...올댓스포츠와 계약



한국 수영 단거리 간판 지유찬

수영 단거리 신성 지유찬(21)이 한국 수영 간판 황선우(20), 김우민(22)과 한솔밥을 먹는다.

'피겨 여왕' 김연아와 황선우 등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수영 국가대표 지유찬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지유찬은 2022년 처음 국가대표로 선발된 이후 급격한 기량 성장을 보여 한국 단거리 대표 주자로 발돋움했다.

올해 열린 항저우 아시안 게임 경영 남자 자유형 50m에서는 21초67로 깜짝 금메달을 차지했고, 계영 400m에서도 이호준-김지훈-황선우와 호흡을 맞춰 은메달을 합작했다.

지유찬은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올댓스포츠와 함께 해 매우 기쁘다. 아시안게임

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내년 도하 세계선수권대회와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단거리 수영 선수도 세계적인 선수와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구동희 올댓스포츠 대표는 "지유찬은 한국 수영이 늘 목말라했던 단거리 종목에서 희망을 선사한 선수다. 세계 무대에서 본인 기량을 마음껏 펼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건우 기자

7개월 만에 복귀 우즈, 세계랭킹도 '깜짝'

7개월 만의 필드 복귀전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치러낸 타이거 우즈(미국)의 세계랭킹이 깜짝 뛰었다.

우즈는 4일 발표된 남자 골프 주간 세계랭킹에서 898위로 올라섰다.

최장 기간 세계랭킹 1위를 꺾자는 등 일인자를 호령하던 전성기 때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지난주 1천328위보다 무려 430계단 뛴 건 좋은 소식이다.

지난 4월 마스터스 때 중도 기권한 뒤 997위였던 우즈의 세계랭킹은 대회에 출전하지 않으면서 계속 하락해 1천위 밖으로 밀렸다.

우즈는 세계랭킹 최정상급 선수 위주로 20명만 출전한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서 18위에 그쳤지만, 순위 포인트는 24 점을 획득했다.

지난해 세계랭킹 15위까지 올랐으나

LIV 골프로 이적한 뒤 82위까지 밀렸던 호아킨 니만(칠레)은 지난 3일 DP 월드투어 호주 오픈에서 우승하며 59위로 상승했다.

니만은 올해 메이저대회에 세계랭킹 50위 이내 자격으로 모두 출전했지만, 내년 메이저대회 출전권을 확보하려면 다시 50위 이내에 진입해야 한다.

니만과 마찬가지로 LIV 골프로 옮긴 뒤 106위까지 내려앉았던 딘 버미스터(남아공)도 3일 끝난 DP 월드투어 남아프리카 오픈 정상에 오른 덕분에 77위로 올라왔다.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서 우승한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세계랭킹 1위를 더 굳게 다졌고,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온 람(스페인),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 등 상위권은 변함이 없었다. / 박민성 기자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경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세무상담

예규, 판례 등의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약속 드리며, 정확하고 문제없는 세무신고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의 기업이념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원활한 소통, 빠른 피드백 등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최선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세불복지원

경정청구

상속, 증여세 자문

세무조사지원

세무신고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58 업무 A동(신한은행 건물) 10층
| 전화 | 02)532-0456 **| 팩스 |** 02-532-0121

'내 남편과 결혼해줘' 박민영-나인우-이이경-송하윤, 관계성 돋보이는 메인 포스터 공개!

새해 첫 시작을 뜨겁게 달궜 과몰입 유발 인과응보 로맨스가 찾아온다.

2024년 1월 1일(월) 저녁 8시 50분 첫 방송될 tvN 새 월화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극본 신유담/ 연출 박원국/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DK E&M)에서 박민영(강지원 역)과 나인우(유지혁 역), 이이경(박민환 역), 송하윤(정수민 역)의 관계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메인 포스터를 공개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가 어두운 기색이 역력한 과거의 강지원은 박민환(이이경 분)과 손을 잡고 있지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박민환은 강지원의 하나뿐인 절친 정수민(송하윤 분)과도 은밀하게 손을 잡고 있어 이들의 지독한 악연에 이목이 쏠린다.

반면 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 화사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현재의 강지원은 박민환이 아닌 유지혁(나인우 분)과 마주하고 있다.

박민환과는 달리 부드러운 눈빛으로 오로지 강지원만을 바라보고 있는 유지혁에게서는 변치 않는 일편단심이 엿보

인다. 유지혁과 손을 맞잡은 채 과거를 등지고 밝게 미소 짓는 강지원의 얼굴에서는 승자의 여유가 느껴져 인생 2회차 게임 체인저로 돌아올 그녀의 화려한 변신이 기다려진다.

특히 어두운 과거와 찬란한 현재의 극명한 대비 위로 드러난 '운명을 뒤바꿀 기회, 인생 쓰레기 처리는 확실하게!'라는 문구가 강렬한 임팩트를 선사한다.

제활용도 불가능할 남편과 절친의 배신으로 처절한 결말을 맞이했던 강지원이 10년 전으로 돌아가 어떤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타래처럼 얽힌 박민영, 나인우, 이이경, 송하윤의 복수와 사랑이 펼쳐질 tvN 새 월화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2024년 1월 1일(월) 저녁 8시 50분에 첫 방송된다.

/ 김재원 기자



아스트로 문빈

故 문빈 추모 공간, 팬들 항의에 결국 폐쇄 판타지오 "거짓 선동 말아달라...루머 배포 법적 대응"

지난 4월 세상을 떠난 그룹 아스트로 문빈의 추모 공간이 팬들의 항의 끝에 결국 폐쇄됐다.

아스트로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지난 3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아로하(아스트로 팬덤명)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선운사 달의 공간(추모 공간)을 3일 저녁 8시부터 즉각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고창군에 위치한 선운사 달의 공간은 문빈에 대한 팬들의 추모를 위해 지난 2일 개방된 공간이다. 기존에는 남한산성 인근 사찰 국청사에 추모 공간이 조성됐으나 최근 이전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전 소식을 접한 팬들은 판타지오와 선운사 간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선운사에서의 문빈 애장품 전시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팬들은 "판타지오는 빈이의 추모 공간을 서울에서 4시간 넘게 떨어진 깊은 산속으로 보내면서 그의 생전 애장품을 전시하겠다고 공지했다"며 "판타지오는 선운사라는 절과 올해 9월 업무협정을 맺었

다"고 주장했다. 판타지오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SNS에서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다"며 "판타지오는 선운사와 그 어떠한 종류의 협정, 협약, 계약을 맺은 바 없고 어떠한 금전적 이해관계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달의 공간(추모 공간)을 국청사에서 선운사로 이전하게 된 계기는 동절기 방문객들의 안전 우려와 문빈 군의 영구위패 안치를 위한 것"이라며 "국청사가 선운사에 속해 있는 말사인 것이 인연이 되어 이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 임직원들은 오직 문빈군을 위하는 마음으로 선운사에 내려가 며칠간 손수 공간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며 "문빈 군에 대한 판타지오 임직원의 마음을 부디 거짓으로 왜곡하고 선동하지 말아달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사실이 아닌 루머 배포는 강경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이수정 기자

'서울의 봄' 주말 170만명 관람...첫 주보다 많아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게 통상적인데, 오히려 늘어나는 '역주행' 현상을 보인 것이다.

극장가에서 역주행은 큰 흥행을 할 조짐으로 받아들여진다. '국제시장'(2014), '변호인'(2013), '광해, 왕이 된 남자'(2012) 등 1천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영화들도 첫 주말보다 두 번째 주말 관객이 많았다는 게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측의 설명이다.

'서울의 봄'이 '범죄도시 3'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첫만 영화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성수 감독이 연출하고 황정민과 정우성이 주연한 '서울의 봄'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긴박했던 9시간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탄탄한 이야기와 뛰어난 연기로 호평받고 있다.

이동욱과 임수정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싱글 인 서울'은 지난 주말 12만3천여명(매출액 점유율 5.9%)을 모아 2위였다. 지난달 29일 개봉한 이 영화의 누적 관객 수는 22만5천여명이다.

할리우드 공포영화 '프래디의 피자가게'(6만4천여명·3.1%)와 일본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5만4천여명·2.7%)이 그 뒤를 이었다.

/ 강지연 기자



세븐틴, 나고야돔서 13만5천 팬 만나

그룹 세븐틴이 지난달 30일과 이달 2~3일 일본 반테린 돔 나고야에서 단독 콘서트를 통해 3회에 걸쳐 '캐럿'(세븐틴 팬덤) 13만5천명을 만났다고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가 4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도쿄, 사이타마, 아이치 등을 도는 일본 돔 투어 '팔로우 투 재팬'(FOLLOW TO JAPAN)의 하나로 진행됐다. 세븐틴은 이번 콘서트에서 '손오공', '돈키호테'(DON QUIXOTE), '굿 투 미'(Good to Me) 등 인상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세븐틴은 "저희가 최근 받은 대상(마마워즈)에는 '꾸준히 하면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멋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븐틴은 교세라 돔 오사카와 후쿠오카 페이페이 돔에서 투어를 이어간다.

/ 양희진 기자

세계연합신문 www.wunion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조영광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희진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신용회생 상담
 - 소상공인·자영업자 세출발기금
- 잠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신선도
 - 경고·선박금융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온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SAMSUNG



당신은 하늘을 보세요
저는 공기를 볼게요

집 안팎 공기를 10분마다 학습해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맞춤청정 AI+**

* 맞춤청정 AI+ 학습된 실내외 공기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물이 꺼져 있을 때에도 10분마다 제품 내 센서 동작 및 공기질을 예측하여 미리 ON 동작 -실외 공기질은 지역별 공기질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므로 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한국표준협회 주관 AI+ 인증 취득 - 맞춤청정 AI+ 기술에 대한 제품 소프트웨어 품질을 인증 취득(관련 국제 표준: ISO/IEC 25023:2016) * 맞춤청정 AI+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1회 SmartThings에서 인공지능 설정으로 셋팅 필요
* SmartThings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martThings 앱 설치 및 연동, 무선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합니다.



BESPOKE 큐브™ Air

가전을 나답게.